

# 서울의 캠퍼스 타운, 대학과 마을의 상생은 가능한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발표  
이창현 교수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 차례

- 1. 서론
- 2. 위험 사회와 대한민국
- 3. 대학내 활동 : 녹색 캠퍼스
- 4. 커뮤니티 활동 : 캠퍼스 타운
- 5. 정릉 지역의 캠퍼스 타운 기획
- 6. 결론



# 1. 서론

## 대학과 공동체 그리고 도시

- 대학은 지식 공동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왔음.



# 대학과 마을~ : 상생모델은 가능한가?

- 대학은 지역 커뮤니티와 상생하는가?





## 2. 위험의 일상화, 위험사회!

- Ulrich Beck, 'World at Risk'
  - 근대사회는 위험사회이다.
  - 근대성은 인간 이성의 진보와 사회 발전으로 요약되지 않는다. 근대성에 내재한 재난과 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을 줄여나가는 '성찰적 근대화'가 필요하다.



# I SHOP THEREFORE I AM, AFFLUENZA-대학캠퍼스 끝 없는 소비마당

- 소비 바이러스
  - 독감 Influenza에 착안해 ‘풍요로움에 대한 현대사회의 병적인 욕구를 질병’으로 바라보는 것
  - 카드는 초과 지출을 부추기고
  - TV는 소비를 유혹하고
  - 과장된 풍요로움은 박탈감 강화
- 대학인조차 소비주의 탐닉
  -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 3. 대학 캠퍼스의 현주소?

； 위험사회를 극복할 지속가능성의 부재

## 현재 : 위험 사회의 재생산

- 위험사회의 위험성 증가
- 산업자본주의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기지
-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무한경쟁의 생존논리
- 자본과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분자의 생산 기지

## 미래 : 안전 생명 사회의 창조

- 배려와 속의의 사회논리를 생산해내야 함.
- 위험사회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가치 생산해야 함.
- 지속 가능한 미래의 대안가치를 마련해야 함.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동체.



# 녹색캠퍼스와 위험사회 대응

- Green Campus
  - 위험사회의 대안을 체험
  - 환경친화적인 캠퍼스 구현  
(Making the Green Campus)
- Green Curriculum
  - 위험사회에 대한 정보/자료수집
  - 녹색지식인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Making the Green Curriculum)
- Green Network
  -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노력 경주
  - 네트워크구성을 통해 녹색캠퍼스운동의 지속화  
(Making the Social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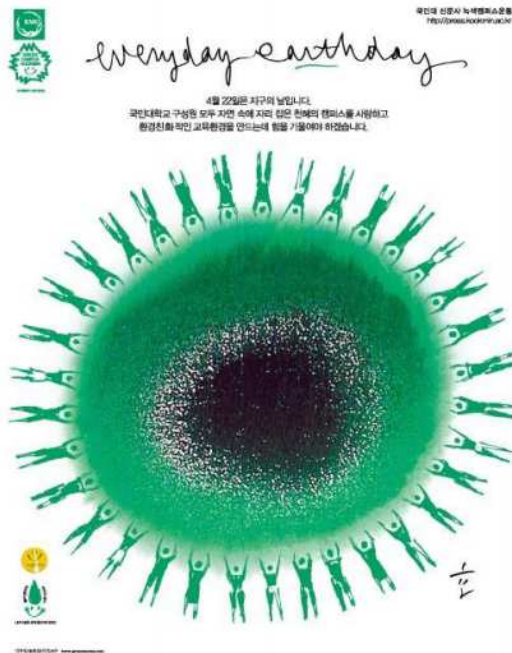




# 국민대 녹색 캠퍼스운동 시작

국민대신문 762호 1면

- 2003년 녹색캠퍼스-봄학기
  - Everyday earthday
  - 4월1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녹색캠퍼스작업을 시작함
  - 당시, 국민대학교 신문사(주간:이창현교수)에서 시행



# 차 없는 캠퍼스

국민대신문 763호, 766호

- 2004년 녹색캠퍼스-봄학기
  - 지하주차장 건설을 계기로 캠퍼스 위의 주차장 폐쇄.
  - 297개의 주차면을 꽃밭으로 바꾸는 퍼포먼스 시작



### 차 없는 캠퍼스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민대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캠퍼스를 녹색 캠퍼스로 만드는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석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캠퍼스에 녹색의 숨결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캠퍼스에는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자동차가 우리가 걸 수 있는 캠퍼스의 녹색 공간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 대학 주야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04년 봄이면 지하 주차장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위해 잠시 양보했던 캠퍼스 공간을  
국민대인 모두가 함께 하는 녹색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조금 줄이고,  
사람들이 같은 조금 늘이고,  
그 주변에 푸른 숨결 가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녹색캠퍼스라 함은...  
국민대학교 녹색캠퍼스 운동  
<http://press.kookmin.ac.kr>

### 차 없는 캠퍼스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는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우에게 깨끗한 인간의 공간을 되찾아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도 차 없는 캠퍼스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캠퍼스의 지붕 모두 소화를 한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내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완성되면 차로 가득찼던 캠퍼스는  
우리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녹색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붕 위에 만들어졌던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생명이 숨쉬는 푸른 숲의 캠퍼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동차 오름 속에서 피땀 흘린 숨이  
더 푸르러지면, 그 속에서 우리는 보다  
인간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연과 소음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과 새의 지저귀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차 없는 캠퍼스'는  
우리 자신에게는 건강을 되찾아 주며,  
대기오염 해소를 고수하는 지구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입니다.

국민대신문사  
<http://press.kookmin.ac.kr>

# 재활용하는 녹색캠퍼스

국민대신문 768

## ○ 2004년 녹색캠퍼스-가을학기

- 아름다운 가게의 움직이는 가게 유치하고
- 2005년도에는 아름다운 가게 상설점을 학생생활관에 개점 함.

움직이는 가게...나눔의 정, 보람은 두배  
오는 21일(화) 두번째 움직이는 가게 열려



우리의 사가 주최하는 녹색캠퍼스 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움직이는 가게'가 지난달 23일(일) 우리 학교 인우관앞에서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도서·음반·인형·옷 등 갖가지 생활용품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세 주인의 사랑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청정원 총장과 아름다운 가게 박원순 상임이사, 포북원, 학생 그리고 '재활용하는 녹색캠퍼스'

△남원초(회계)교수-도서 17권 △박원순(미술)교수-회화 1점 등을 기증하였고 △윤호집(사다)교수는 현장에서 티셔츠에 직접 그림을 그려 기증하였다. <관련내용 7면>

"아름다운 가게" 판매일의 박희재 총장은 "국민대학교가 녹색캠퍼스 활동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대해주시고 기쁘다."며 "다른 대학교들보다 녹색캠퍼스 활동이 활발하여서 그만큼 자원봉사자를 하는 분들의 의욕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도우미로 활동한 한지현(문·3)은 "교수님의 소개로 이런 좋은 활동을 알게 되어 즐거하게 되었다."며 "행사에 참가하게 되면서 사람도 많이 알게 되었고 학생들의 호응도 좋은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두 번째 '움직이는 가게'는 오는 21일(화) 열린다.

김준하 교수기자 [skd04@kookmin.ac.kr](mailto:skd04@kookmin.ac.kr)

## 재활용하는 녹색 캠퍼스 recycling green campus

아름다운 가게가 국민대학교 녹색캠퍼스와 만났다. 쓰지 않는 물건을 기부하고, 이를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만남의 마당이 열린 것이다. 이것은 안쓰는 물건들의 재활용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생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대량생산의 순환 고리에 빠져서 무엇이든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못사는 일회용 인간형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것을 재활용하면서 낡은 것에 생명을 불어 넣는 지속가능 인간형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이 마당은 우리에게 거창한 구로나 이들을 제공하기보다는 안 쓰는 물건을 저장하는 아름다운 기부와 헌 물건을 사용하겠다는 아름다운 정신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작은 배려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녹색캠퍼스운동이 추구하는 정신이다.



국민대 신문사

<http://press.kookmin.ac.kr>





# 녹색전사단 활동

- 2004년 녹색캠퍼스-가을학기
  - 녹색캠퍼스 수업을 듣는 학생 5인1개조가 교내에서 환경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천하도록 함.
    -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이것이 캠퍼스에서 실천됨



### I Love 녹색전사단

"북한산과 녹색캠퍼스"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녹색전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녹색캠퍼스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戰士가 되겠다는 각오이다. 이들은 지난 주에는 교수님과 함께 스스로 녹색배려시장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는 공유의 장이었다. 아울러 녹색전사단은 자기 컵(my cup) 이용하기, 도서관 뒤 계곡 조경 계획, 생활관내에서의 분리수거방안, 식당 음식물 쓰레기 절감방안, 내가 버리는 1주일동안의 쓰레기 분석 등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전사단의 아름다운 노력은 녹색캠퍼스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참여가 될 것이다.

아들에게 친사를 보낸다.

국민대 신문사  
<http://press.kookmin.ac.kr>





# 녹색캠퍼스의 역할과 전망

- 위험사회의 극복
  - 근대사회의 위험성의 문제제기, 극복노력
-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가치의 생산
  -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
- 생명생태사회의 대안가치의 모색
  - 새로운 가치의 모색과 교류
- 대안가치의 생산과 실천
  - 일반사회에 비해서 진보적인 생활양식을 창안하고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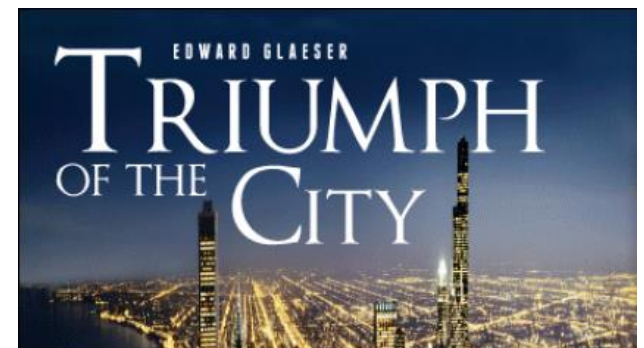




# 4. 도시의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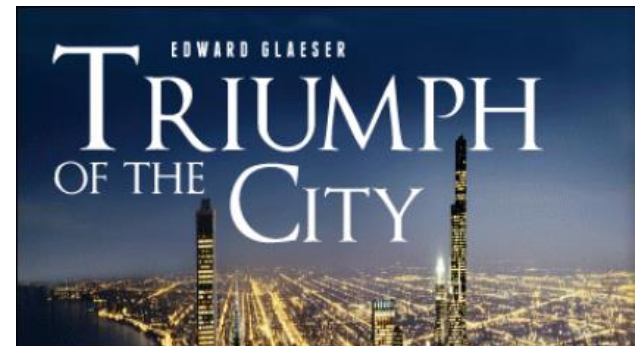
## :대학과 도시의 공생?

- 도시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대학은?
-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살기(인접성) 때문에 “지식의 공동 생산이라는 협력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지성)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장점을 더욱 키운다” “도시는 혁신의 중심지이다” (활자의 발명) “도시는 시장과 문화를 연결하는 관문이다” “도시는 친환경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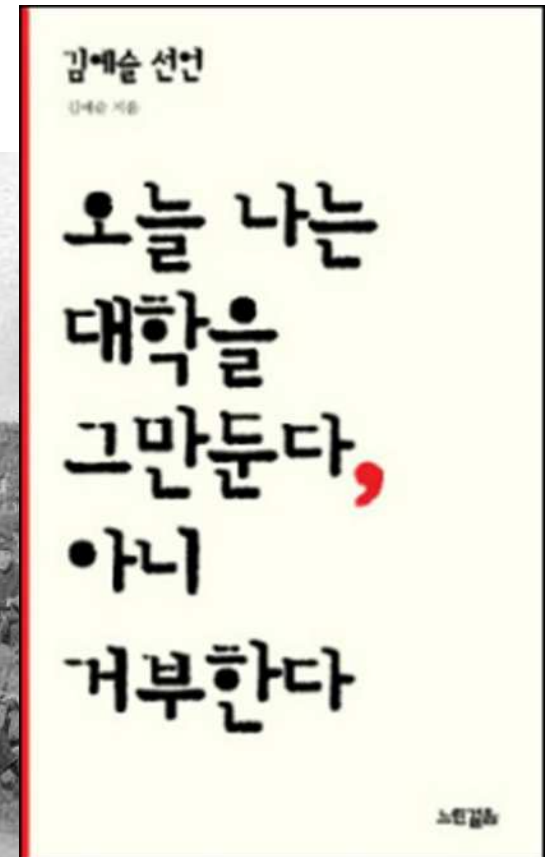
# 도시의 승리? :대학이 사람을 만든다.

- 아테네에서 방갈로르에까지 : 아테네, 바그다드, 나가사키= 도시는 문명간 지식교류의 채널. 도시의 인접성은 문화간 연결과, 정보 소통의 양을 증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증진. 인적 자본이 도시의 성공을 설명한다. 뉴욕, 실리콘밸리, 방갈로르
- New York vs. Detroit ○ 70년대 이후 디트로이트와 뉴욕의 쇠퇴는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의 쇠락! ○ 디트로이트는 사람 대신에 건물에 투자하며, 인종 갈등에 따라 부유한 층과 기업인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낳았다. 뉴욕은 금융산업의 부흥에 따라 발전



# 대학: 무너지는 상아탑

- 한국 대학의 기원: 서구적 근대교육의 시작
- 캠퍼스 안과 밖을 이원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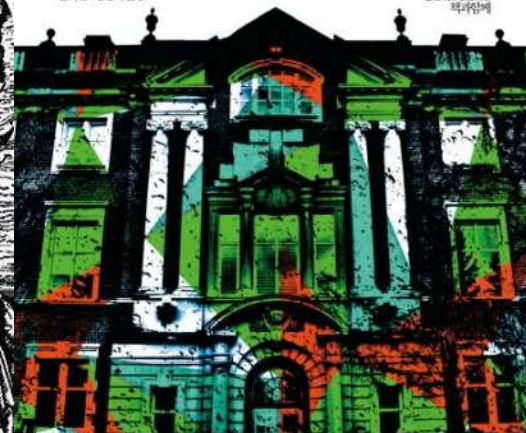
# 대학은 바벨탑이 아니다. :커뮤니티가 대학이다.

- 유토피아, 폐허의 대학



## 폐허의 대학 The University in Ruins 새로운 대학의 탄생은 가능한가

필라델피아  
윤기환·김영희 옮김





# 5. 동네 안에 국가있다. 대학이 동네에 있다.

- 생활정치, 시민정치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 시장영역이 빠르게 확대되어 왜곡된 시장 작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여지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괴된 마을공동체를 되살리려야 한다.





# 성북형 캠퍼스타운의 벨트

- 서울시내에서 가장 대학의 수가 많은 성북구는 캠퍼스타운  
시범사례: 고려대학교 파이빌.

1. 청년중심의 지역활성화

2. 4차산업 신활력 일자리 창출

3. 문화/예술거점 조성



# 대학도시 서울의 비전

서울형 캠퍼스타운



+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목표

창의적  
청년인재 양성



대학자원의  
공유



지역문화의  
융합



# 서울시 캠퍼스타운의 기본방향



1.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



2.대학인프라의 커뮤니티 공유

---



3.창의적 커뮤니티 친화형 교육 확대

---



4.지역 커뮤니티 문화 특성화

---



5.커뮤니티 대학간 교류 강화

---

# 대학+커뮤니티=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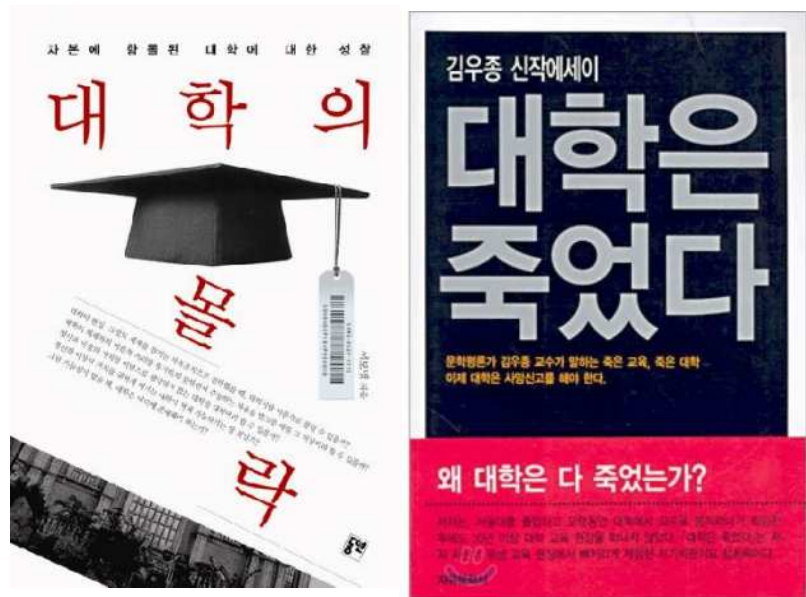
주민, 대학, 행정의 상호 협력하는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체계 구축계획 수립



# 6.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자 :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 ■ 패러다임 쉬프트

1.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
2. 세계화를 넘어 국가화
3.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
4. 중앙을 넘어 주변으로
5. 경쟁에서 공존으로





# 감사합니다.

- 서울의 캠퍼스 타운  
: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찾아서

